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9일 새벽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한국과 세네갈전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이지솔이 동점 헤더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 KIA 양현종 KBO리그 5월 MVP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5월 MVP에 선정됐다.

KBO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공동 시상하는 2019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진행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투표 결과 양현종은 기자단투표(29표 중 19표)와 팬 투표(7만9,246표 중 4만9,874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64.23점으로 2017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KBO 리그 월간 MVP로 선정됐다.

양현종은 5월 2일 광주 삼성전부터 5월 31일 광주 키움전까지 총 6경기에 선발 출장해 4승 2패를 기록했다. 5월 전 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하며 팀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했던 양현종은 승리 1위(SK 산체스와 공동), 탈삼진 1위(44개)로 2관왕을 차지하고 평균자책점은 1.10으로 2위에 올랐다. 또 5월 한 달간 41이닝을 투구하며 지난 5월 31일 광주 키움전에서 개인 통산 1,700이닝을 달성하기도 했다.

5월 MVP에 선정된 양현종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진화 기자

## 순천시청 장인성 춘계실업경구 우승

순천시청 장인성(31)이 2019 춘계실업경구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장인성은 지난 5일 경남 창원 공설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2019 춘계실업경구연맹전 남자 개인 단식 결승전에서 순창군청 오승규(32)를 4-2로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고흥 출신으로 순천대를 졸업하고 8년간 인천 시체육회에 몸담았던 장인성은 올해 고향에 돌아와 순천시청에 등지를 틀었다. 이번 우승은 고향 복귀 후 첫 금메달이다.

순천시청 김백수 감독은 "장인성은 30세가 넘었는데도 체력이 좋고 포핸드 스트로크가 장점인 선수"라며 "노련함을 바탕으로 순천시청의 부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문경에서 열린 제97회 동아일보기 전국경구대회에서 순천시청을 2년 만에 전국 4강 무대에 올려놓은 이하늘(25)은 NH농협 의 나다솜(24)과 개인 혼합복식에서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 동강대, 세한대에 7회 월드컵

동강대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올 U리그 왕중왕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동강대 야구부는 지난 7일 순천말마구장에서 끝난 '2019 KUSF 대학야구 U리그' 후반기 D조 세한대와 3차전에서 12-4 7회 콜드게임이 거뒀다.

이날 동강대는 세한대에 1회와 2회 각각 1실점하며 기선제압을 당했지만 5회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역전의 빅이닝을 만들어냈다.

앞선 4회까지 2안타 빈공에 그친 동강대는 5회 세한대 마운드가 볼넷 3개와 폭투 등으로 불안한 틈을 타 이찬영의 3루타, 최원영의 홈런포 등 장단 4안타를 터트리며 전세를 뒤집었다.

이어 6회 2점, 7회 5점을 추가하며 12-4 대승을 거뒀다.

U리그 왕중왕전은 전후반 리그 성적을 합산해 조 3위까지 티켓이 주어진다. 동강대는 U리그 전반기 4승2패 승점8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조기철 기자

# 정정용식 뒷심축구 사상 첫 우승 꿈꾼다

8강 세네갈전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 '원팀' 리틀 태극전사 '4강 신화' 재현

선수비 후역습 선택 전반 1골·후반 6골 12일 남미의 북병 에콰도르와 결승 다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폴란드 월드컵을 치르는 한국대표팀의 전·후반은 완전 판판이다. 전반전은 답답해 보일 때가 많다. 잔뜩 움크린 채로 상대 공세를 받아내는 데 지중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전반에는 유효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여 결국 무릎을 꿇게 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9일(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U-20 월드컵 8강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이강인(발렌시아)의 활약 속에 연장 접전 3-3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한국은 2-2로 맞선 승부차기에서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선 오세훈(아산)이 상대 골키퍼 파울로 재차 찬 끝에 골망을 흔든 반면 세네갈의 마지막 키커의 공이 공중으로 뜨면서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U-20 월드컵의 전신인 1983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오른 이후 무려 3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4강 신화를 재현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이 속한 이른바 '죽음의 조' F조에서 2승 1패, 조 2위로 당당히 16강에 오른 뒤 '속적' 일본을 1-0으로 돌려세우고 8강에 오른 데 이어 세네갈까지 꺾고 4강에 진출해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까지 살렸다.

정 감독은 세네갈전 승리 후 "상대가 전반전에 공격적으로 나올 때 내내심을 갖고 움츠렸다가 후반전 우리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개인 능력이 상대보다 나은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와 실력이 비슷하거나 상대가 더 좋다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우리 대표팀의 기본 콘셉트가 바로 정 감독이 얘기한 '선수비 후역습'이다. 강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 감독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 북병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해야 했다. 이에 대표팀은 매 경기 다른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을 가동하고 포지션별 역할을 변화해 주면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카운터택을 노리는 기본 틀은 바꾸지 않았다.

결국 대표팀은 상대를 우리 진영으로 끌고 와 촘촘한 수비를 공을 빼앗은 뒤 측면과 뒷공간을 노려 전방까지 단번에 치고 올라가 마무리 짓는 전술로 '죽음

의 조'를 2승 1패, 조 2위로 통과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에는 체력적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선수비 후역습은 대표팀에 더욱 긴요한 전술이 됐다.

한국은 16강전 상대인 일본보다는 이를, 8강에서 맞붙는 세네갈보다는 하루를 덜 쉬고 뛰어야 했다.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3차전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가져간 일본전에서 대표팀은 전반 내내 일본에 압도당했다. 전반전 일본의 볼 점유율은 무려 72%나 됐을 정도였다. 하지만 대표팀은 일본을 결국 1-0으로 눌러 8강 행렬로 삼았다.

정 감독이 '8강에 오른 팀 중 최고 강팀'이라고 꼽은 세네갈전에서도 피지컬과 체력 모두 열세였음에도 후반 무서운

뒷심으로 한국축구가 오래도록 남을 명승부를 연출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전까지 5경기를 치르면서 7득점(5실점)을 했다.

이 가운데 전반에 나온 득점은 아르헨티나전(2-1 승) 전반 42분 터진 오세훈의 헤딩 선제골이 유일하다.

나머지 6골은 연장전을 포함해 모두 후반에 터졌다.

일본전 오세훈(아산)의 헤딩 결승골은 후반 39분에 나왔다. 세네갈전에서는 1-2로 끌려가 패색이 짙던 후반 53분 이지솔(대전)의 극적인 헤딩 동점골이 나와 대역전극의 발판을 놓았다.

한국에 패한 뒤 가까아 마사나가 일본 감독은 "한국 후반전 전술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유수프 다보 세네갈 감독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팀인 줄 몰랐다"고 했다.

정 감독은 자신이 대회 전 약속했던 4강 목표를 달성한 뒤 "우리는 '꾸역꾸역 팀'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정용 감독의 뒷심축구는 이제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 나아가 사상 첫 우승 꿈까지 꾸게 한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4강전은 12일 오전 3시 30분 무블린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조선대 선수들. 왼쪽부터 김중석, 김명하, 서준빈, 한승환. /최진화 기자

## 조선대 모일환 코리아오픈 200m 우승

21초16... 조선대 400m 계주 깜짝 금메달

조선대학교 모일환(2년)이 2019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 남자 200m에서 우승했다.

모일환은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200m에서 21초16으로 가장 먼저 결승라인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4×100m에서는 한국대표팀이 출전을 포기하고 인도 선수들이 실격 당하는 가운데 조선대(김중석, 김명하, 서준빈, 한승환)가 41초 48을 기록, 경북도립대(42초15)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해머던지기에서는 목포시청 박

서진(26)이 58.75m로,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여수시청 진민섭(27)이 5m50으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부상 복귀전에 나선 김국영(28·국군체육부대)은 남자 100m에서 10초58로 3위에 올랐다. 비가 내리고, 조속 2m의 맞바람이 분데다 몸 상태도 100% 회복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록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김국영은 KBS배전국육상경기(13~17일)와 전국육상선수권대회(25~28일)에서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기준기록(10초10) 통과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 광주·전남 1999년생 3인방 엄원상·김정민·황태현

# 5경기 모두 출전 '4강 신화' 힘 보태

U-20 월드컵 '어게인 1983' 4강 신화 재현에는 광주·전남 출신 1999년생 3인방이 있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엄원상(FW·광주FC)과 김정민(MF·FC리퍼블), 그리고 광양제철고 출신의 황태현(DF·안산그리너스FC)이다.

이들 3인방은 조별리그와 16강, 8강전 5경기를 모두 뛰며 대표팀의 36년 묵은 4강 진출 꿈을 이뤄내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무엇보다 대표팀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은 엄원상이 있기에 가능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뛰어난 개인기량을 갖춰 'KTX' '업살라' 등의 닉네임을 갖고 있는 엄원상은 2018수원JS컵, 톨롱컵, AFC U-19 챔피언십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측면 공격과 약자 같은 수비를 통해 후반 대표팀의 조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세네갈전에서도 후반 교체투입돼 전방을 휘저었고, 승부차기에서는 앞서 1.2번 키커가 실패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3번 키커로 나서 승부차기 첫골에 성공했다.



엄원상

김정민

황태현

'리틀 기성용'으로 불리는 김정민은 조별리그 3경기과 일본전까지 스타팅으로, 세네갈전은 교체투입되면서 중원의 영향을 높이고 공격적인 임무를 분담했다는 평가다.

김정민은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 날카로운 킥 등 다양한 능력은 물론 최전방 공격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팔방미인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세네갈전에서도 광주FC 입단한 뒤 오스트리아 1부 리그 FC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했다. 세네갈전 1번 키커로 나서 실족,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김정민은 정정용호 중원의 안정감을 더하는 선수임을 부정할 수 없다.

U-20 대표팀 주장 황태현은 5경기

모두 스타팅으로 나서 대표팀 수비를 맡았다.

황태현은 광양제철고 출신으로 사이드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활약으로 연명별 국가대표를 거의 모두 거쳤다. 2015년 U-17 대표팀, 2017년에는 두 달마다 진행된 U-18 대표팀 훈련에서 매번 뽐내는 등 수비의 핵으로 자리매김했고 자연스럽게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18 대표팀부터 줄곧 주장을 맡고 있다.

U-20 월드컵 4강 신화 재현을 견인한 3인방. 이제 이들은 12일 오전 3시 30분 무블린에서 열리는 에콰도르와의 4강전에서 새 역사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